

‘금융은 적폐’ 인식... 핀테크 등 경쟁력은 뒷걸음질

☞ 정부 1년과 금융혁신

(下) 금융산업 경쟁력

‘은산분리’ 인터넷銀 성장 발목 경쟁력 강화보다 적폐청산 집중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정책 필요

문재인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포용적·생산적 금융은 그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금융에 대한 신뢰 회복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매년 뒤로 밀려나야 했다.

정부가 이달 들어 금융업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지만 금융권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이 역시 높은 진입장벽 아래서 기존 금융회사가 누리던 지대(地代)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는 적폐 청산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이다.

◆금융경쟁력 강화할 청사진 부재

지난해 4월과 7월 인터넷전문은행인

〈진입규제 개편의 비전〉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	진입장벽 낮추기	진입과정의 투명성
○ 객관성, 중립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 구성	○ 인터넷전문은행 추가인가 검토	○ 인가기준 구체화, 인가매뉴얼 개편
○ 금융산업 경쟁도를 주기적으로 평가	○ 소액당기보험회사, 온라인보험사 활성화	○ 인가 진행상황 통보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공정한 진입정책 결정	○ 중개전문증권사를 인가제→등록제 전환	○ 쟁점 발생시 외부 전문가 등과 협의
	○ 자문, 일임업 자본금요건 완화	○ 인가 ‘Fast Track’ 도입
	○ 특화신탁사 활성화	

금융산업 혁신 촉진
현리하고 혁신적인 서비스
모험자본 공급, 고용창출

금융산업 혁신 촉진
현리하고 혁신적인 서비스
모험자본 공급, 고용창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문을 열었다. 흥행 측면은 물론 금융권의 모바일 경쟁을 촉발시켰다는 점에서 보면 ‘슈퍼 메기’ 역할을 톡톡히 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인터넷전문은행의 인허가가 이전 정부에서 이뤄졌고,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은산분리 완화

가 요원해지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앞날은 어두워졌다.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추가인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은산분리라는 현행법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면서 사실상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은 불가능해졌다.

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금융혁신 과제 중에 금융산업 자체의 낮을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청사진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아쉽다”며 “금융의 실패지원과 취약계층 포용을 강화하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낙후된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끌어 올릴 정책방안들도 풍부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연구위원은 “디지털금융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우리 금융당국도 디지털금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제도 구축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해 들어 금융산업의 경쟁 촉진을 위해 3월에는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을, 5월에는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방안과 금융분야 정보보호 내실화방안을 내놨다.

◆금융적폐 청산 논란은 지속

앞으로도 금융권에서는 경쟁력 강화보다는 금융적폐 청산에 관심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향후 발전방안을 논하기에 앞서 당장 눈 앞의 문제점들을 처리하기도 급급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금융당국의 수장 역시 지난 1년을 평가하는 자리에서 금융분야 경제 민주주의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현재 지난달 말까지 입법예고된 기간 동안 제시된 업계의견을 검토 중이다. 타당성이 있으면 의견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대주주적격성 심사 강화 등 핵심 사항은 최대한 정부원안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그룹 통합감독과 금융회사의 계열사 주식 소유 문제는 금융권을 넘어 재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관련 이슈가 연이어 부각되면서 특정 기업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융회사의 계열사 주식 소유규제의 목적이 특정기업에 대한 정부 영향력 확대라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외국 투기자본의 경영 위험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해당 금융회사가 그것까지 감안해서 자발적 개선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한은 신임 부총재보에 유상대·정규일

한국은행은 14일 이주열 총재가 한은 부총재보에 유상대 국제협력국장과 정규일 경제통계국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유 신임 부총재보는 지난 1986년 한은에 입행해 경제학 박사로서 국제국장, 뉴욕사무소장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국제협력국장으로 재임해왔다. 특히 국제협력국장으로 중국인민은행과의 통화스왑계약 연장, 캐나다 및 스위스 중앙은행과의 신규 통화스왑계약 체결 등 실무를 총괄함으로써 외환안정확충 및 금융협력 증진에 기여했다. 또 국제국장을 역임하면서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외환 및 외화자금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하는 등 외환·국제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 신임 부총재보는 지난 1987년 한은에 입행했다. 마찬가지로 경제학 박사로서 경제연구원 부원장 및 국제협력실장



유상대 한은 신임 부총재보 정규일 한은 신임 부총재보

을 거쳐 지난 2016년 7월부터 경제통계국장으로 재임해왔다. 경제연구원의 주요 실장 및 부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우리나라의 중장기 및 현안과제 연구 등을 통해 금융위기 대응방안 등 다양한 정책대안 등을 제시했으며 경제통계국장으로서는 주요 통계의 편제와 공표를 총괄하는 한편 디지털·공유 경제의 국민계정 반영 로드맵 완성, 빅데이터 활용방안 연구 등을 통해 경제분석에 유용한 통계의 개발 및 확충에 기여했다. /이봉준 기자 bj35sea@

‘새벽배송’ 유통 공룡도 뛰어든다

롯데슈퍼·GS리테일 등 이어 이마트물 ‘쓱배송 굿모닝’ 서비스 맛별이부부·1인가구 등에 편리

늦은 저녁시간에 주문을 하면 아침에 집 앞으로 배송되는 새벽배송 서비스가 스타트업을 시작으로 유통대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모바일로 장 보는 소비자들이 급증하면서 유통업체가 온라인 쇼핑에 투자를 확대하며 소비자 니즈를 한 걸 끌어올린 결과다.

새벽배송 서비스는 특히 아침 이른시간 또는 저녁 시간에만 상품을 수령할 수 있는 맛별이부부, 아침식사를 챙기는 주부,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은 1인가구 등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물이 오는 16일부터 예약배송 시간을 확대,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오전 6시부터 상품을 배송 받을 수 있는 ‘쓱배송 굿모닝’ 서비스를 시작한다.

기존 이마트물 예약배송은 상품을 받을 수 있는 첫 시간대가 ‘오전 10시~13시’였다. 여기에 ‘오전 6시~9시’, ‘오전 7~10시’의 두가지 시간대를 추가한다. 예약 배송 시간대 중에서 가장 빠른 10시~13시, 11~14시 시간대의 배송요청이 전



이마트물이 새벽에 배송을 완료해주는 ‘쓱배송 굿모닝’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마트

체 배송의 35%를 차지하는 등 이른 시간에 상품을 배송 받고자 하는 소비자 수요가 높다는 점을 감안, 오전 시간대 배송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마트는 영등포, 용산 지역에 하루 약 500건의 오전 배송을 진행하며 1차 테스트 운영 후 7월 중으로 강남 지역까지 배송 가능 지역을 확대해 ‘쓱배송 굿모닝’의 배송 건수를 2000건까지 늘릴 계획이다.

롯데, GS도 새벽배송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롯데슈퍼는 지난 2월부터 오전 7시 이전에 배송이 완료되는 ‘오전배송’을 시행하며 온라인 배송 서비스 강화에 힘을 쏟았다. 고객 주문시간을 늘리고 배송시간을

최소화한 점이 특징이다. 밤 22시까지 주문하면 오전 3시부터 7시까지 4시간 동안 집앞 배송이 완료된다. 이는 롯데슈퍼 온라인 배송 전용 센터인 ‘롯데프레시센터’의 운영 노하우를 적극 활용한 결과다.

롯데슈퍼는 서초구와 강남구, 용산구, 동작구, 관악구 지역의 온라인 배송을 담당하는 롯데프레시서초센터를 시작으로 소비자 사용 실적과 수요 상권을 검토, 향후 경인권과 전라도 광주에 운영하고 있는 7개의 프레시센터에도 서비스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또 GS리테일은 지난해 7월 GS리테일의 온라인쇼핑몰 GS프레시를 통해 마트물 최초로 새벽배송 서비스를 선보였다. 당시 GS리테일은 신선식품과 가정간편식 등 식품 MD의 차별화를 내세우며 기존 GS아이수퍼를 GS프레시로 변경하기도 했다. GS프레시는 오후 10시까지 상품을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 1시부터 7시 사이에 문 앞으로 상품을 배송해준다.

이 외에도 동원홈푸드는 가정간편식 브랜드 ‘더반찬’을 새벽에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CJ대한통운은 풀무원 계열의 율가홀푸드, 위클리리츠 등과 협업을 통해 새벽배송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한줄뉴스

- ▲ 서울시가 주거여건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에게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원(최대 90% 이내), 최장 6년 동안 저리로 융자해 준다.
- ▲ 앞으로 김치류·절임류 가공식품에 사용된 소금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 될 전망이다.
- ▲ KB금융이 2022년까지 국공립 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 돌봄교실 확충을 위해 750억 원을 교육기부하기로 했다.
- ▲ 현대·기아자동차가 올해 들어 브라질, 러시아 등 신흥시장에서 큰 폭의 판매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 ▲ 여행객과 화물수요의 증가로 국내 LC C 업체들이 올해 하반기에도 인력 채용을 진행한다.

- ▲ LG전자가 프리미엄 로봇청소기 ‘코드제로 R9 씽큐(ThinQ)’를 14일 출시했다
- ▲ 삼성전자가 사용하지 않는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무상으로 제공한다.
- ▲ 금융당국이 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야심차게 내놓은 유병자 전용 실손의료보험이 출시 한 달여 만에 5만건에 육박하는 판매고를 기록하는 등 흥행 돌풍을 이어가고 있다.
- ▲ 금융감독원은 2017년 말 기준 금융기관 신용공여액(차입금액·빚)이 1조 5166억원 이상인 31개 계열기업군을 2018년 주채무계열로 선정했다.
- ▲ 식품업계가 여름을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프리미엄 아이스크림’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5.1조 증가

한은, 금융시장 동향 5개월 만에 최대 수준

주택 관련 자금 수요로 은행 가계대출이 5개월 만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2018년 4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목기지론 포함) 잔액 규모는 781조5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5조1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11월 6조

6500억원의 증가 폭을 기록한 이후 5개월 만 최대 수준을 보였다.

특히 기타대출에서 증가 폭이 확대됐다. 지난달 말 기타대출 잔액 규모는 202조1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7000억원 증가했다. 전월 증가 폭인 1조5000억원 대비 1조2000억원 증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기타대출은 주택관련 자금 수요 등으로 전월 대비 증가 폭이 확대됐다”며 “주로 재건축아파트 이주,

신규아파트 분양 및 입주, 봄 이사철 생활자금 등으로 수요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주택담보대출은 정부 규제에 따른 주택 매매거래 감소의 영향으로 2조4000억원 증가에 그쳤다. 전월 증가 폭인 2조8000억원 대비 4000억원 감소했다.

실제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6000호로 지난 2월 1만1000호, 3월 1만4000호 대비 크게 줄었다. 지난달 당국이 다주택자 양도세 및 종가세 등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면서 주택거래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봉준 기자